

《問奇集》에 나타난 韻類 및 聲調 특징 探析*

이 춘 영**

<目次>

I. 序論	III. 結論
II. 《問奇集》의 韻類 및 聲調 특징	

I. 序論

《問奇集》은 중국 명나라 隆慶·萬曆년간에 활동한 대학자 張位가 지은 小學저서이다. 줄고 <《問奇集》작가 및 聲類 계통 探析>¹⁾에서의 고찰에 의하면, 張位는 江西 新建(오늘날의 南昌)사람이며, 南京司業·東閣大學士·太子太保·文淵閣大學士·武英殿大學士 등을 지냈고 관직이 吏部尙書에까지 올랐다. 또한 國子司業을 지낼 때는 《洪武正韻》으로 학생들을 가르친 성운학 지식을 겸비한 학자이다. 그러므로 張位가 명대 官話와 南昌方言의 언어적 배경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問奇集》 두 卷에 直音형식으로 기록된 「某音某」·「某音某, 又音某」·「某, 某何聲」 등의 1,357組 내외의 자료는 張位의 실제음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 어음을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필자가 <《問奇集》작가 및 聲類 계통 探析>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問奇集》의 聲母계통은 명대 관화

* 이 연구는 2007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 영남대학교 중국언어문화학부 중국통번역과 전임강사

1) 줄고, <《問奇集》작가 및 聲類 계통 探析>, <中國語文學>第44輯, 523-560쪽 참고.

의 특징을 구현하고 있다.²⁾ 또한 필자는 《問奇集》에 반영된 閉口韻尾 [-m]의 消失³⁾과 入聲 消失⁴⁾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問奇集》에서는 閉口韻尾[-m]과 入聲 消失의 두 특징 이외에도 韻類 및 聲調의 여러 어음변천 과정을 나타내는 특징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자료들은 중국 한어의 어음변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들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問奇集》에 나타난 어음자료의 분석을 통해 韻類 및 聲調에 반영된 어음특징⁵⁾들을 파악해 보고, 나아가 역대 한어 어음변천 과정 및 명대 관화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그 위치를 고찰하며, 또한 현대 南昌방언의 어음계통을 참고로 그 방언적 영향을 밝혀 보고자 한다.

II. 《問奇集》의 韻類 및 聲調 특징

張位가 《問奇集》에 기록한 1,357組 내외의 注音자료를 《廣韻》206韻으로 분석하여, 그 중에 나타난 韻類 및 聲調 특징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1. 一·二等韻歸併과 三·四等韻歸併

開合4等の 구조는 中古 이래 점차 합병되어졌다. 즉, 開口1·2等이 합병되고, 開口3·4等이 합병되고, 合口1·2等이 합병되고, 合口3·4等이 합병된다. 명나라 관화음을 반영한 운서들에서 一·二等韻歸併과 三·四等韻歸併

2) 줄고, <《問奇集》작가 및 聲類 계통 探析>, 《中國語文學》第44輯, 523-560쪽 참고.

3) 줄고, <《問奇集》에 나타난 16·17世紀 閉口韻尾[-m]消失 여부에 대한 小考>, 《中國語文學》第48輯, 523-536쪽 참고.

4) 줄고, <張位《問奇集》에 나타난 入聲概念 小考>, 《東亞人文學會》第十輯, 265-286쪽 참고.

5) 본고의 韻類 및 聲調 특징은 丁鋒, 《疏漢對音與明代官話音研究》(第1版;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5, 2)에 따른다.

의 현상은 보편적으로 보이고 있다.⁶⁾ 또한 오늘날 南昌방언에서도 1·2等韻이 합류(예를 들면, 效攝開口一二等 글자가 대부분 [au]로 읽힌다)되었고, 3·4等韻이 합류(예를 들면, 流攝開口三四等 幫系 글자가 [ɛu]로 읽힌다)되었다.⁷⁾ 《問奇集》 注音符號에서는 아래 자료에서 그 현상들이 반영되고 있다.

1) 一二等韻歸併

《問奇集》에서 1等字와 2等字가 서로 주단 것은 모두 14組이며, 그 예는 아래와 같다.

《問奇集》注音	《廣韻》		
	字	反切	韻
菅音奸	菅	古顏切	刪
	奸	古寒切	寒
毒音矮	毒	於改切	海
	矮	烏蟹切	蟹
篡音竄	篡	初患切	諫
	竄	七亂切	換
嶸音弘	嶸	戶萌切 ⁸⁾	耕
	弘	胡肱切	登
監音奸	監	古銜切	銜
	奸	古寒切	寒

6) 丁鋒, 《疏漢對音與明代官話音研究》(第1版;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5, 2), 220쪽 참고.
본고의 開合四等은 陳新雄, 《訓詁學》(上冊)(臺北市: 臺灣學生書局, 1994, 9), 359-365쪽 附錄一 <今本廣韻切語下字表>에 따라 분석한다.

7) 楊時逢, <南昌音系>, 《歷史語言研究所集刊》39(1969.1), 189-191쪽 참고.

8) 陳彭年重修·林尹校訂, 《新校正切宋本廣韻》(初版; 臺北市: 黎明文化事業公司, 1976. 9), 188쪽에校訂하여 “戶萌切은 唇音 開口字로써 喉音 合口字를 음 달 았다(戶萌切, 此以唇音開口切喉音合口)”라 하였다.

2) 三四等韻歸併

《問奇集》에서 3等 글자와 4等 글자가 서로 주단 것은 모두 48組이며, 그 예는 아래와 같다.

《問奇集》注音	《廣韻》		
	字	反切	韻
便音駢	便	房連切	仙
	駢	部田切	先
喙音惠	喙	許穢切	廢
	惠	胡桂切	霽
子音結	子	居列切	薛
	黎	古屑切	屑
薦音箭	薦	作甸切	霰
	箭	子賤切	線
龜音圭	龜	居追切	脂
	圭	古攜切	齊

2. 輕脣韻[i]介音消失

「輕脣韻[i]介音消失」은 輕脣韻 「東」·「鍾」·「微」·「虞」·「廢」·「文」·「元」·「陽」·「尤」·「凡」10韻(上·去·入 포함) 글자들이 현대 한어로의 변천과정에서 介音[i]가 사라지고 開口呼나 合口呼로 발음됨을 말한다. 이 현상은 명나라 官話를 반영한 자료에서 이미 일반적인 현상으로 나타났다.⁹⁾ 《問奇集》에는 아래 4개의 자료에서 輕脣韻字를 開口1·2等 글자나 合口1等 글자로 음을 주 달고 있다.

9) 丁鋒, 《疏漢對音與明代官話音研究》(第1版;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5, 2), 220쪽 참고.

《問奇集》注音	《廣韻》			
	字	反切	聲	韻
苻音蒲	苻	防無切	奉	虞
	蒲	薄胡切	並	模
鮞音暴	鮞	房六切	奉	屋
	暴	蒲木切	並	屋
甌音蒲	甌	防無切	奉	虞
	蒲	薄胡切	並	模
扶音匍	扶	防無切	奉	虞
	匍	薄胡切	並	模

위 자료의 「苻」·「鮞」·「甌」·「扶」는 현대 한어에서 모두 개음[i]가 사라지고 [u]음으로 읽혀진다. 오늘날 南昌방언에서도 遇攝 合口 3·4等 幫系字는 介音[i]가 사라지고 [u]음으로 읽히고, 通攝 入聲 合口 3·4等 幫系字에서도 介音[i]가 사라지고 [u?]로 읽혀진다.¹⁰⁾ 聲母에서는 奉母와 並母가 서로 음을 주 달고 있는데, 이는 모두 全濁音으로 같은 발음방법의 혼동이다. 黃侃선생의 「同位相變」¹¹⁾에서 이미 증명한 바와 같이 같은 발음방법의 음은 혼동되기 쉽다.

3. 「江」「宕」合流

「『江』『宕』合流」는 《切韻指南》「江」攝이 한어 어음의 변천과정에서 「宕」攝(入聲 제외)과 합류됨을 말한다. 王力은 두 攝의 한어에서의 합류가 5세기에 이미 시작되었다고 추측하며, 그 중고에서 현대까지의 어음 변천 과정을 江(ɔŋ)·唐(aŋ,uaŋ)·陽(iɑŋ,iwɑŋ)→[aŋ]·[iaŋ]·[uaŋ]로 擬音하고 있다.¹²⁾ 《問奇集》에서는 아래 2개의 자료에서 「江」攝과 「宕」攝의

10) 楊時逢, <南昌音系>, 《歷史語言研究所集刊》39(1969.1), 190쪽 참고.

11) 陳新雄, 《古音學發微》(初版, 臺北市: 文史哲, 1996.10), 672-673쪽 참고.

합류를 반영하고 있다.

《問奇集》注音	《廣韻》		
	字	反切	韻
沆音項	沆	胡朗切	蕩
	項	胡講切	講
降,向平聲	降	下江切	江
	向	式亮切	漾

위 자료의 「沆」은 현대 중국 한어에서 [aŋ]음으로 읽히고, 「項」은 [iaŋ]음으로 읽혀져 그 독음이 다르다. 오늘날 南昌방언에서도 「江」·「宕」의 合流 현상이 보인다. 그 중 《廣韻》 蕩韻 開口1等字와 「項」은 모두 [ɔŋ]으로 발음된다.¹³⁾ 여기에서 남창방언의 영향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降」과 「向」은 현대 중국 한어에서 모두 [iaŋ]음으로 읽혀진다. 그러나 오늘날 남창방언에서 「降」은 [ɔŋ]으로 발음되고, 「向」은 [iɔŋ]으로 발음된다.¹⁴⁾ 이 注音符號에서는 官話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다.

4. 「通」攝三等字讀如一等

「『通』攝三等字讀如一等」은 《廣韻》「東」·「鍾」韻(上聲·去聲 포함)의 일부 三等字(예를 들면, 風·諷·諷·隆·中·忠·封·奉·龍·訟·重 등)가 어음변천과정에서 介音[i]가 소실되어 현대 한어에서 洪音으로 읽혀짐을 말한다. 명나라 官話音을 반영한 자료에서는 이 현상을 각기 다른 정

12) 王力, 《漢語史稿》(新1版: 北京: 中華書局, 1980. 6), 190-192쪽.

13) 楊時逢, <南昌音系>, 《歷史語言研究所集刊》39(1969.1), 183·189쪽 참고. <南昌音系>은 그 발음을 [oŋ]로 표기하나, 그 음은 《漢語方音字彙》의 [ɔŋ]에 해당한다. 본고에서는 《漢語方音字彙》의 표기법을 따른다.

14) 北大中文系語言學教研室編, 《漢語方音字彙》(2版: 北京: 語文出版社, 2003.6), 323-324쪽 참고.

도에서 반영하고 있다.¹⁵⁾ 오늘날 南昌방언에서도 일부 通攝 三等字(예를 들면, 風·奉·隆·從·中·崇·鍾·絨·茸·共·弓·恐 등)가 [uŋ]로 읽혀진다.¹⁶⁾ 《問奇集》에서 「東」·「鍾」韻(上聲·去聲 포함)의 三等字가 洪音字와 서로 음을 주 달고 있는 자료는 6개이며, 다음과 같다.

《問奇集》注音	《廣韻》		
	字	反切	韻
縱音總	縱	卽容切	鍾
	總	(祖叢切) ¹⁷⁾	東
縱音宗	縱	卽容切	鍾
	宗	作冬切	冬
愆音總	愆	息拱切	腫
	總	作孔切	董
共音公	共	九容切	鍾
	公	古紅切	東
攸音宗	攸	七恭切	鍾
	宗	作冬切	冬
供音貢	供	居用切	用
	貢	古送切	送

張位の 실제 발음에서 「縱」·「愆」·「共」·「攸」·「供」이 이미 개음[i]을 소실하고 洪音으로 읽혀졌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현대 한어에서 「縱」·「總」·「宗」·「愆」·「共」·「公」·「供」·「貢」은 모두 [uŋ]으로 읽혀지고, 오늘날 南昌방언에서도 通攝의 「縱」·「總」·「宗」·「共」·「公」·「供」·「貢」이 모두 [uŋ]으로 읽혀진다.¹⁸⁾

15) 丁鋒, 《疏漢對音與明代官話音研究》(第1版;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5, 2), 60쪽 참고.

16) 楊時逢, <南昌音系>, 《歷史語言研究所集刊》39(1969.1), 190-191쪽 참고.

17) 본고에서 《廣韻》에 보이지 않은 글자는 《集韻》을 참고하며 ()로 표기한다.

5. 「庚青」(合口)「東鐘」合流

『庚青』(合口) 『東鐘』合流는 《廣韻》「東」·「冬」·「鍾」韻(上聲·去聲 포함)과 「庚」·「耕」·「淸」·「青」·「登」韻(上聲·去聲 포함) 合口字가 합류됨을 말한다. 王力은 현대 한어에서 합류된 음을 [uŋ]·[iuŋ(yŋ)]로 擬音하고 있다.¹⁹⁾ 명나라 官話音을 반영한 자료 중에 《老乞大諺解》와 《朴通事諺解》의 對音·《通解》今俗音·《葡漢辭典》·《等韻圖經》·《元韻譜》·《泰律篇》·《韻略匯通》 등에서 「庚」·「耕」·「淸」·「青」·「登」韻이 이미 「東」·「冬」·「鍾」三韻에 합류됨을 반영하고 있다.²⁰⁾ 오늘날 南昌方言에서도 《廣韻》「東·冬」·「鍾」韻字(上聲·去聲 포함)와 일부 「庚」·「耕」·「淸」·「青」韻 合口字와 「登」韻(上聲·去聲 포함) 合口字가 합류하였다.²¹⁾ 《問奇集》에서 「用」韻字와 「映」韻 合口字가 서로 음을 주 달고 있는 자료가 1개 보이며, 아래와 같다.

《問奇集》注音	《廣韻》		
	字	反切	韻
雍音詠	雍	於用切	用
	詠	爲命切 ²²⁾	映

18) 北大中文系語言學教研室編, 《漢語方音字彙》(2版; 北京: 語文出版社, 2003.6), 363-371쪽 참고.

19) 王力, 《漢語史稿》(新1版; 北京: 中華書局, 1980.6), 192쪽.

20) 丁鋒, 《琉漢對音與明代官話音研究》(第1版;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5.2), 221쪽 참고.

21) 楊時逢, <南昌音系>, 《歷史語言研究所集刊》39(1969.1), 190쪽 참고.

22) 陳彭年重修·林尹校訂, 《新校正切宋本廣韻》(初版; 臺北市: 黎明文化事業公司, 1976.9), 429쪽에 校訂하여 “詠의 爲命切은 唇音 開口字로써 喉音 合口字를 음 달았다(詠 爲命切, 此以唇音開口切喉音合口)”라 하였다.

6. 「寒山」(合口)「桓歡」不對立

「『寒山』(合口)『桓歡』不對立」은 《廣韻》「刪」·「山」韻(上聲·去聲 포함) 合口字와 「桓」韻字(上聲·去聲 포함)가 합류됨을 말한다. 王力은 현대 한어의 합류된 음을 [uan]으로 擬音하고 있다.²³⁾ 명나라 官話음을 반영한 자료 중 《青郊雜著》·《等韻圖經》·《元韻譜》·《泰律篇》·《韻略匯通》·《正音拈言》 등에서 《廣韻》「刪」·「山」韻(上聲·去聲 포함)合口字와 「桓」韻字(上聲·去聲 포함)의 대립이 사라졌음을 반영하고 있다.²⁴⁾ 그러나 오늘날 南昌방언에서는 「桓」韻 「官」·「換」·「丸」·「碗」은 [uɑn]으로 읽히고, 「刪」·「山」韻(上聲·去聲 포함)合口字 「關」·「鰓」·「皖」·「彎」은 [uan]으로, 「還」·「幻」은 [an]으로 읽혀진다.²⁵⁾ 《問奇集》에서도 「諫」韻 合口字와 「換」韻字가 서로 음을 주 달고 있는 자료가 1개 보이며, 아래와 같다.

《問奇集》注音	《廣韻》		
	字	反切	韻
纂音竄	纂	初患切	諫
	竄	七亂切	換

7. 濁上變去

中古 全濁上聲字는 한어 어음변천과정에서 대부분 去聲으로 변하여²⁶⁾

23) 王力, 《漢語史稿》(新1版; 北京: 中華書局, 1980.6), 185쪽.
 24) 丁鋒, 《疏漢對音與明代官話音研究》(第1版;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5, 2), 221쪽 참고.
 25) 楊時逢, <南昌音系>, 《歷史語言研究所集刊》39(1969.1), 194쪽 참고.
 26) 王力, 《漢語史稿》(新1版; 北京: 中華書局, 1980.6), 194쪽에서 王力은 ‘腐’·‘釜’·‘輔’·‘緩’·‘皖’·‘寤’·‘強’·‘挺’·‘艇’의 일부 예외현상도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全濁上聲字의 去聲으로의 변화 규칙은 성립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오늘날 제 4성이 되었다. 명나라 官話를 반영한 자료 중에 《韻略易通》·《老乞大諺解》와 《朴通事諺解》의 對音·《通解》今俗音·《等韻圖經》·《交泰韻》·《泰律篇》·《韻通》·《西儒耳目資》·《切韻聲原》·《韻略匯通》·《元韻譜》에서 濁上變去 현상이 반영되고 있다.²⁷⁾ 《問奇集》에서도 中古 全濁上聲字가 去聲字와 서로 음을 주 달고 있는 자료가 8개 보이며, 아래와 같다.

《問奇集》注音	《廣韻》			
	字	反切	聲	韻
四音似	四	息利切	心	至
	似	詳里切	邪	止
汜音泗	汜	詳里切	邪	止
	泗	息利切	心	至
漉音駭	漉	胡介切	匣	怪
	駭	侯楷切	匣	駭
召音紹	召	寔照切	禪	笑
	紹	市沼切	禪	小
梵音范	梵	扶泛切	奉	梵
	范	防鏗切	奉	范
傳音篆	傳	直戀切	澄	線
	篆	持兗切	澄	獮
相音象	相	息亮切	心	漾
	象	徐兩切	邪	養
覆音阜	覆	扶富切	奉	宥
	阜	房久切	奉	有

위의 中古 全濁上聲字들은 현대 한어에서 모두 去聲으로 변하여, 오늘

27) 丁鋒, 《疏漢對音與明代官話音研究》(第1版;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5, 2), 221쪽 참고.

날 제 4성으로 읽혀진다. 그러나 오늘날 南昌방언에서는 去聲이 다시 陰去(中古 去聲 清音 포함: 高升調35)와 陽去(中古 去聲 濁音과 全濁上聲字 포함: 低平調11)으로 나뉘는데, 그 중 中古 全濁上聲字는 陽去에 포함된다.²⁸⁾ 위의 자료들을 볼때, 「四」·「泗」·「相」의 세 글자는 靑音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명대 관화를 반영했음을 알 수 있다.

III. 結 論

중국 역대 어음자료는 저자의 언어배경과 正音개념의 영향을 받는다. 張位의 언어배경은 南昌방언과 官話이다. 《問奇集》의 저술의도는 讀書人에게 바른 讀音을 가르치고자 함에 있기 때문에, 《問奇集》은 張位의 正音을 구현한 소학저서임을 알 수 있다. 줄고 <《問奇集》작가 및 聲類 계통 探析>에서의 분석에 의하면, 《問奇集》의 聲類 계통에는 明代 官話의 특징을 구현하고 있었다. 장위에게 있어 官話가 正音이 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聲類계통에서 또한 南昌방언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의 분석에서 파악된 《問奇集》에서 반영된 韻類 및 聲調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1. 一·二等韻歸併과 三·四等韻歸併
2. 輕唇韻[ɲ]介音消失
3. 「江」「宕」合流
4. 「通」攝三等字讀如一等
5. 「庚青」(合口)「東鐘」合流
6. 「寒山」(合口)「桓歡」不對立
7. 濁上變去

28) 楊時逢, <南昌音系>, 《歷史語言研究所集刊》39(1969.1), 133·185·196쪽 참고.

위의 특징 이외에도, 필자의 <《問奇集》에 나타난 16·17世紀 閉口韻尾[-m]消失 여부에 대한 小考>에서 분석한 21組 자료에서 閉口韻尾[-m]의 消失²⁹⁾현상이 보여 지고, <張位《問奇集》에 나타난 入聲概念 小考>에서 분석한 4組의 자료에서 入聲字와 다른 聲調의 글자가 서로 주를 달아 入聲 消失³⁰⁾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이 두 현상도 《問奇集》의 韻類 및 聲調의 특징에 해당된다.

《問奇集》 韻類 및 聲調의 특징과 명나라 官話음을 반영한 자료 및 오늘날 南昌방언을 비교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³¹⁾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본고에서 분석한 《問奇集》 韻類 및 聲調의 9가지 특징은 모두 明代 官話를 반영한 자료에서 구현된 특징과 일치된다. 오늘날 南昌방언과 비교해 볼 때, 그 중 「一二等韻歸併과 三四等韻歸併」·「輕唇韻[i]介音消失」·「『江』『宕』合流」·「『通』攝三等字讀如一等」·「『庚青』(合口)『東鐘』合流」·「閉口韻尾[-m]의 消失」의 6개 현상만이 오늘날 南昌방언에 구현되고 있다. 또한, 「沈音項」의 注音 자료에서는 張位가 자신의 방언 영향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寒山』(合口)『桓歡』不對立」와 「入派三聲」현상은 오늘날 南昌방언에서 구현되지 않은 특징들이며, 「濁上變去」현상에서도 南昌방언이 아닌 명대 官話를 구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張位 《問奇集》의 韻類 및 聲調에서는 명나라 官話음을 구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9) 줄고, <《問奇集》에 나타난 16·17世紀 閉口韻尾[-m]消失 여부에 대한 小考>, 《中國語文學》第48輯, 523-536쪽 참고.

30) 줄고, <張位《問奇集》에 나타난 入聲概念 小考>, 《東亞人文學會》第十輯, 265-286쪽 참고.

31) 표에서 ○는 그 특징이 나타남을 나타내고, ×는 그 특징이 나타나지 않음을 나타낸다. 그 외에도 《問奇集》자료 중 3개 이하의 자료는 나타난 자료의 수효로 표시하였다.

아래 표의 명대 官話음계 자료는 丁鋒, 《琉漢對音與明代官話音研究》(第1版: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5, 2), 220-221쪽에 따랐다.

	明代 官話音系 자료														현대 南昌 방언		
	1581 ~ 1620	1422	1500 년대	1517	1543	1583 ~ 1588	1587	1606	1606	1611	1613	1618	1621 ~ 1644	1626		1641	1642
	問奇 集	韻略 易通	諺解 對音 ³²⁾	四聲 通解 今俗 音	青郊 雜著	葡漢 辭典	書文 音義 便考 私編	程氏 墨苑	等韻 圖經	元韻 譜	交泰 韻	泰律 篇	韻通	西儒 耳目 資	切韻 聲原	韻略 匯通	
一、二等 韻歸併	○	○	○	○	○	○	○	○	○	○	○	○	○	○	○	○	○
三、四等 韻歸併	○	○	○	○	○	○	○	○	○	○	○	○	○	○	○	○	○
輕唇韻 [ɲ]介音 消失	○	○	○	○	○	○	○	○	○	○	○	○	○	○	○	○	○
「江」, 「宕」合 流	2	○	○	○	○	○	○	○	○	○	○	○	○	○	○	○	○
「通」攝 三等字 讀如 一等	○	○	○	○				○	○	○	○	○	○	○	○	○	○
「庚青」 (合口) 「東鐘」 合流	1	×	○	○	×	○		×	○	○	×	○	×	×	×	○	○
「寒山」 (合口) 「桓歡」 不對立	1	×	×	×	○	×	×	×	○	○	×	○	×	×	×	○	×
閉口韻 尾[-m] 消失	○	×	×	○	×	○	○	○	○	○	○	○	×	○	×	○	○
濁上 變去	○	○	○	○	×				○	×	○	○	○	○	○	○	濁上 變陽 去
入派 三聲	○	×	○	○	×	×	×	×	○	×	×	×	×	×	×	×	×

32) 《老乞大諺解》와 《朴通事諺解》 오른편의 對音을 말한다.

< 參考文獻 >

- 明 張位, 《問奇集》, 《百部叢書集成·寶顏堂秘笈》18(臺北市: 藝文印書館), 1965 明萬曆繡水沈氏尙白齋刻寶顏堂秘笈本
- 宋 丁度, 《集韻》(初版: 臺北市: 學海出版社), 1986.11.
- 王力, 《漢語史稿》, (新一版: 北京: 中華書局), 2003.3.
- 林慶勳·竺家寧, 《古音學入門》, (初版: 臺北市: 學生書局), 1999.9.
- 王傳德·尙慶栓, 《漢語史》, (第一版: 濟南: 濟南出版社), 1996.4.
- 董同龢, 《漢語音韻學》, (臺北市: 文史哲出版社), 1998.10.
- 葉寶奎, 《明清官話音系》, (廈門: 廈門大學出版社), 2001.3.
- 耿振生, 《明清等韻學通論》, (第1版: 北京: 語文出版社), 1998.7.
- 丁 鋒, 《琉漢對音與明代官話音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5.2.
- 陳新雄, 《古音學發微》(初版: 臺北市: 文史哲), 1996.10.
- 北大中文系語言學教研室編, 《漢語方音字彙》(2版: 北京: 語文出版社), 2003.6.
- 陳彭年重修·林尹校訂, 《新校正切宋本廣韻》(初版: 臺北市: 黎明文化事業公司), 1976.9.
- 楊時逢, <南昌音系>, 《歷史語言研究所集刊》39, 1969.1.
- 줄고, <<問奇集> 작가 및 聲類 계통 探析>, 《中國語文學》第44輯, 523-560쪽.
- 줄고, <張位<問奇集>에 나타난 入聲概念 小考>, 《東亞人文學會》第十輯, 265-286쪽.
- 줄고, <<問奇集>에 나타난 16·17世紀 閉口韻尾[-m]消失 여부에 대한 小考>, 《中國語文學》第48輯, 523-536쪽.

< 中文提要 >

中國歷代語音資料以作者之語言環境與正音概念爲背景, 明碩儒張位小學

著作《問奇集》記錄語詞的讀音與作者的音韻概念，以供學生與讀書人參考。此為研究當時語音的一項重要資料。本論文以分析《問奇集》中呈現的韻類和聲調特徵為內容，並通過反映明代官話之資料和現代南昌方言比較，考察其於漢語音變過程中的地位。

本文觀察《問奇集》所呈現之韻類和聲調之特徵為：

- 一、一二等韻歸併과 三四等韻歸併
- 二、輕脣韻[i]介音消失
- 三、「江」「宕」合流
- 四、「通」攝三等字讀如一等
- 五、「庚青」(合口)「東鐘」合流
- 六、「寒山」(合口)「桓歡」不對立
- 七、濁上變去
- 八、閉口韻尾[-m]消失
- 九、入聲 消失

由上述可知《問奇集》韻類和聲調特徵中充分具備明代北方官話之語音特徵，然於「沆音項」之注音，亦不免出現張位南方言之影響。

주제어 : 《問奇集》, 張位, 明代韻類, 明代聲調, 輕脣韻[i]介音消失, 「江」「宕」合流, 「通」攝三等字讀如一等, 濁上變去